

창조된 고전으로서의 『쓰레즈레구사(徒然草)』

엄인경*

uik6650@hotmail.com

Contents

1. 『쓰레즈레구사』의 연구사 개관
2. 『쓰레즈레구사』 연구사의 경향과 문제점
3. 정전화와 『쓰레즈레구사』의 본질 사이
4. 소결

Abstract

『徒然草』는今日도日本屈指の古典として愛されている作品である。中世の作品で、江戸時代以後から現代に至るまで膨大な研究が積まれてきて、その傾向を一括してしまうのは至難ではあるが、それにもまず全般的に指摘できることは『徒然草』の研究は注釈書を中心としてなされてきたということであろう。注釈書が中心に置かれたため、『徒然草』を日本中世のエクリチュールという観点から読み直そうとした研究はむしろ珍しかった。90年代以後意欲的な研究が相次いでいるが、それにもかかわらず、随筆という近代的なジャンル意識に閉じられていたゆえ、歌人兼好が持っていたはずの和歌の基盤等に対する言及は不十分であった。それに伴い作品の正典(キャンオン)化とともに兼好という人物のイメージは歪んだ形で伝えられてきた。また、いくつかの論考によって、通史的な文体の影響関係では新しい地平を開いたが、時代と作品の関係は有機的に捉えられなかった。

長い研究史を持ちながらも、今まで偏った享受傾向を示してきた『徒然草』に関して、本稿では書記行為と狂気、そして時代の問題まで考察の範疇にいれて、より多様で幅広い理解の照明を作品にあてるべき必然性について述べることにする。作品の正典化と作品の本質の狭間で浮遊してきた研究史を整理し、新たな研究の可能性と展望に迫ってみたい。そうすることにより『徒然草』の本質に近づき、ひいては日本中世という時代とエクリチュールを通して、先行文学の土壌が中世にいかにか受容され、動乱の現実をどういうふうに反映できたか窺えたと考えるからである。さらに、いままでジャンルに拘っていた文学史とは違う日本中世文学の様相が新たに展望できる土台にしたい。

Key Words : 徒然草、兼好、創造された古典、エクリチュール、ジャンル意識

1. 『쓰레즈레구사』의 연구사 개관

『쓰레즈레구사』¹⁾에 관한 연구를 통시적으로 개관하기 위해서는 작품의 집필 시기를 알아야 할 필요가 있으나, 그 성립시기를 특정하기는 어렵다. 대략 14세기 전반에 쓰여졌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작품성립으로부터 약 1세기 동안 『쓰레즈레구사』가 향수되거나 인용된 기록은 보이지 않는다.²⁾ 『쓰레즈레구사』의 독자였다고 말할 수 있는 최초의 인물은 15세기 전반의 가인 쇼테쓰(正徹)일 것이다. 그는 『쓰레즈레구사』의 최고(最古) 사본인 『쇼테쓰본(正徹本)』³⁾을 남겼으며, 그의 저작 『쇼테쓰모노가타리(正徹物語)』⁴⁾대에서도 『쓰레즈레구사』에 대해 두 번에 걸쳐 말하고 있다.

상74 ……쓰레즈레구사의 형태는 세이쇼나곤의 마쿠라노소시와 같다.

(上74 ……つれづれ草のおもふりは清少納言が枕草子の様也。)

-
- 1) 현존 최고사본인 『쓰레즈레구사』⁵⁾쇼테쓰본(正徹本)에는 표기가 「つれづれ種」로 되어 있다. 「徒然」이라는 한자가 「とぜん」으로 음독되다가 「つれづれ」라는 일본어 훈독으로 읽힌 데에는 어휘사적 사정이 내재되어 있고 그 경위에는 아직 의문이 남아있다. (遠藤好英(1998) 「『徒然』의 語史—一文章史의 観点から見た問題点—」 『日本文学ノート』第33号) 다만 한자가 문자로서 히라가나(ひらがな)를 압도하는 권위를 갖던 시기에 『쓰레즈레구사』를 정전화(正典化)하려는 분위기와 맞물려 유포본에 작품명이 「徒然」이라는 한자로 대체되면서 알려지게 된 것이 아닐까 추측된다. 제목은 작품 제명의 인지도를 감안하여 『쓰레즈레구사(徒然草)』로 표기하고 이하 한자는 생략한다.
 - 2) 겐코와 동시대의 인물들, 특히 돈아(頓阿, 1289~1372), 히노 메이시(日野名子), 니조 요시모토(二条良基)가 『쓰레즈레구사』의 독자이지 않았을까 하는 추정이 미야우치 산지로(宮内三二郎(1977)) 『とはずかたり・増鏡・徒然草新見』(明治書院)와 후쿠다 슈이치(福田秀一(1975)) 『中世文学論考』(明治書院) 등에 의해 제시된 바 있다. 그러나 이들이 지직한 『우문현주(愚問賢註)』 『마스카가미(増鏡)』 『다케무키가키(竹むきが記)』 등의 작품과 『쓰레즈레구사』 표현 사이의 유사성은 전체적으로 영향관계를 논하기에는 부족한 것이라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왜냐하면 지직한 부분들은 헤이안시대의 모노가타리(物語)류나 불경, 중국서적 등의 문헌을 공유한 동시대인들의 기록에서 종종 볼 수 있는 표현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 3) 널리 읽힌 대중적 『쓰레즈레구사』의 유포본은 「가라스마루본(烏丸本)」이다. 그러나 현존하는 『쓰레즈레구사』의 최고(最古) 저본은 쇼테쓰의 오키가키(奥書; 책의 유서(由緒) 등의 메모)가 있는 『쇼테쓰본』이며 본 논문에서는 「쇼테쓰본」을 저본으로 한 久保田淳 校注(1989) 『徒然草』(新日本古典文学大系 岩波書店)를 텍스트로 삼는다. 『쇼테쓰본(正徹本)』 『쓰레즈레구사』의 오키가키에는 에이요(永享) 원년(1429)에 『쓰레즈레구사』를 읽고 서사하게 되었다는 내용이 있다. 텍스트, p.316

하22 마쿠라노소시는 어떤 형식도 없이 쓴 것이다. 세 권이 있다. 쓰레즈레구사는 마쿠라노소시를 이어서 쓴 것이다.

(下22 枕草子は何のさまともなく書きたる物也。三札有る也。つれづれ草は枕草子をつぎて書きたる物也)⁴⁾

상74의 내용은 겐코(兼好)⁵⁾의 미적 이념에 대해 공감하는 것이며, 하22의 내용은 『쓰레즈레구사』 저술형태와 『마쿠라노소시』의 공통성을 지적한 것이다. 『쓰레즈레구사』에 대한 최초의 평가이기도 한 쇼테쓰의 지적은 근대 이후 이치코 데이치(市古貞次)의 다음과 같은 평가로 계승되고 있다.

이 책(쓰레즈레구사)은 오랫동안 마쿠라노소시와 나란히 수필문학의 쌍벽으로 일컬어지는데, 전자(마쿠라노소시)가 감각적, 기지적이며 번뜩이는 재기가 넘치는 데에 비해, 이것은 사색적, 지식적이며 다양한 면을 폭넓게 다루며 차근차근 이야기하고 있다.

(本書は長く枕草子並んで、随筆文学の双璧と呼ばれるが、前者が感覺的、機知的であり、才氣のひらめきが溢れているのに対して、これは思索的、知識的であつて、さまざまな面を幅広くとらえて、醇醇として説くのである)⁶⁾

여기에서 ‘오랫동안(長く)’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쇼테쓰의 『쓰레즈레구사』에 대한 언급부터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이치코의 이 책으로 대표되듯 『쓰레즈레구사』는 일본문학사의 중세문학(中世文学)이라는 시기 구분 속에 하나의 소항목으로서 수필이라는 장르명하에서 설명되고 있으며, 중세의 한 은둔문학자가 낳은 교양서로의 의의가 인정되는 것이 통설이라 하겠다. 부연하면 『쓰레즈레구사』와 『마쿠라노소시』를 일본 고전 수필의 쌍벽이라 칭하며 내용적으로 대비되는 측면이 있다고 보는 고래의 평가를 여기에서 읽어낼 수 있다.

4) 久松潜一 校注(1976) 『正徹物語』 『歌論集・能楽論集』(日本古典文学大系65), 岩波書店, p.188, p.208

5) 속명(俗名)은 우라베 가네요시(卜部兼好)이며 출가 후 이름을 음독하여 겐코(兼好)라 하였다. 1283년경 출생한 것으로 보이며 몰년(没年)은 미상이나 1352년 이후까지 생존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하 겐코라 한다.

6) 이치코(市古)가 ‘오랫동안(長く)’이라고 한 것은 쇼테쓰의 『쓰레즈레구사』 언급부터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市古貞次(1982) 『日本文学史概説』, 秀英出版, p.101

다시 거슬러 오르자면, 쇼테쓰 이후에는 『쓰레즈레구사』를 쇼테쓰의 제자인 신케이(心敬)와 도노 쓰네토리(東常縁)가 인용한다. 쇼테쓰, 신케이, 쓰네토리 세 사람은 가도(歌道)에 있어 사제관계였고, 모두 『쓰레즈레구사』의 미적 이념(특히 제137단으로 대표되는 내용)에 공명하고 있다는 공통성이 있다. 이후 무로마치시대 『쓰레즈레구사』에 대한 감상이나 향수의 흔적을 알 수 있는 발언은 거의 보이지 않으며, 15세기 후반에 황실 내의 서적에 들어갔다는 정도의 기사가 있을 뿐이다.⁷⁾

『쓰레즈레구사』가 일반에게 널리 읽히고 고전으로서 출판계에서 인기를 얻게 된 것은 에도시대 이후의 일이라 할 수 있다. 고전작품의 정전(正典, Canon)이란 교과서나 선문집(選文集)에 실려 반복적으로 향수되면서 권위를 갖게 된 작품 또는 작가를 의미한다.⁸⁾ 그 정의에 따르면 『쓰레즈레구사』는 에도시대에 들어 정전화되어 출판계의 베스트셀러가 되며 폭넓게 향수되기에 이른다. 17세기 초에 『쓰레즈레구사』~최초의 주석서인 하타 소하(秦宗巴)의 『쓰레즈레구사 주요인쇼(徒然草寿命院抄)』(1604)를 시작으로, 하야시 라잔(林羅山)의 『노즈치(野槌)』(1621)나 마쓰나가 데이토쿠(松永貞徳)의 『나구사미구사(慰草)』(1652), 기타무라 기긴(北村季吟)의 『쓰레즈레구사 문단쇼(徒然草文段抄)』(1668) 등⁹⁾ 에도시대를 대표하는 학자들에 의해 쓰여진 각종 고주석서들이 그것을 증명한다.¹⁰⁾

『나구사미구사』에 ‘이 『쓰레즈레구사』도 덴쇼(天正, 1573~1592) 무렵까지는 이름을 아는 사람도 드물었지만, 게이초(慶長, 1596~1615) 시기부터 세상에 퍼지게 되었다(此つれづれ草も、天正の比までは名をしる人もまれなりしが、慶

7) 稲田利徳(1977) 『徒然草の享受はなぜ遅れたか』 『国文学』, 学灯社. 이 논문에 따르면 산조니시 사네타카(三条西実隆, 1455~1537)의 일기 『사네타카코키(実隆公記)』의 1478년 기록과 『今日禁裏御双紙』라는 궁중내 서적 목록, 1478년부터 1618년에 이르기까지 쓰인 승려들의 일기인 『다몬인닛키(多聞院日記)』에 『쓰레즈레구사』의 이름이 보인다고 한다.

8) シラネ・ハルオ・鈴木登美(1999) 『創造された古典』, 新曜社, pp.13~18 이 책 총설(総説)의 정의에 따른다. 케논(Canon)이란 정전(正典)·고전으로서 선별된 텍스트군이라는 의미이며 주요한 문학 텍스트로서 대표되는 것을 말한다.

9) 17세기에 쓰여진 『쓰레즈레구사』~주석서는 이 외에도 많지만, 특히 『노즈치』, 『나구사미구사』, 『문단쇼』를 삼대(三大) 주석서로 일컫는다.

10) 에도 시대의 『쓰레즈레구사』~고주석서 연구에서 가장 활발히 성과를 발표하는 연구자는 시마우치 유코이다. 島内裕子(1997) 『徒然草注釈書の世界—近世以降』 『国文学 解釈と鑑賞』, (1999) 『徒然草寿命院抄』の注釈態度, 放送大学研究年報, (2001) 『徒然草古注釈書の方法—徒然草寿命院抄』から 『野槌』へ-, 放送大学研究年報 등의 논고가 있다.

長の時分より世にもてあつかふ事となれり)¹¹⁾고 하는 간략한 경위가 보이므로 17세기 이후에 『쓰레즈레구사』가 널리 알려지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히라가나(平仮名)로 쓰였다는 점, 그리고 남성에 의한 작품이라는 요건¹²⁾ 등이 하야시 라잔과 같은 주석학자나 교육자들에 의해 주목받으면서 주요 고전으로서의 지위를 획득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경위로 『쓰레즈레구사』는 에도시대 이후 일본의 고전이 되고, ‘일본의 논어(論語)’¹³⁾라는 지위까지 확립하게 되었다.

17세기에 대거 등장한 주석서군으로 인해 『쓰레즈레구사』의 해석과 이해라는 지식의 공급과 수요는 동시에 증가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그 영향으로 이후 오랫동안 『쓰레즈레구사』라는 작품해석에는 교훈서나 은자문학이라는 고정화된 이미지가 동반되었다. 이러한 경향은 에도시대에 한하는 것이 아니라 이후로도 큰 영향력을 가지며 『쓰레즈레구사』의 연구사와 향수사에서 주류를 이루게 된다. 이와 더불어 주석서 유행에 뒤이은 겐코의 전기가 다수 탄생하게 된다. 사실과 무관한 황당무계한 이야기가 많다¹⁴⁾는 점에서 현재는 중요시되지 않지만, 에도시대의 『쓰레즈레구사』가 겐코의 어떠한 에피소드들과 더불어 향수되었는지 후대에 만들어진 허상으로서의 겐코상(像)을 파악하기에는 도움이 되는 자료라 하겠다.

18세기 이후에는 모토오리 노리나가(本居宣長)를 중심으로 한 국학자들에 의해 국학(国学) 정전들이 형성된다. 이 때 주로 나라(奈良) 시대나 헤이안 시대의 텍스트에 기초를 두면서 외래적인 불교나 유교의 색채가 강한 중세와 에도시대의 텍스트들은 포함되지 않았고, 작품에 대한 비판적 의견¹⁵⁾이 존재했음

11) 三谷栄一・峰村文人(1966) 編 『徒然草解釈大成』, 岩崎書店, p.6~7

12) シラネ・ハルオ・鈴木登美, 전게서, pp.26~30. 유교적 젠더(gender)를 구축하는 데에 있어서 헤이안시대의 여류문학을 대체할 남성마춤의 텍스트가 남성의 손으로 쓰인 『쓰레즈레구사』였다.

13) シラネ・ハルオ・鈴木登美, 전게서, pp.408~414

14) 桑原博史, 전게서, pp.89~124나 pp.238~242 등에 따르면 겐코의 젊은 시절의 무용담인 괴조(怪鳥)를 물리친 이야기, 귀족 딸과의 실연으로 인해 출가하게 되었다는 이야기, 가난한 사람들에게 죽을 나눠주었다는 이야기 등이 있지만 위서(偽書)의 기록으로 사실무근으로 간주되어 겐코의 실상과는 거리가 있는 것으로 취급된다.

15) 모토오리 노리나가(本居宣長)는 젊은 시절의 일기 『재경일기(在京日記)』에서는 『쓰레즈레구사』 撰체의 영향이 보이는 등 호의적인 언급이 엿보이나, 만년의 저작인 『다마카쓰마(玉勝間)』에서는 『쓰레즈레구사』를 전면적으로 비판하는 등 복잡한 수용태도를 보인다. 『재경일기』와 『다마카쓰마』는 大野晋・大久保正 編集校訂(1974) 『本居宣長全集』(筑摩書房)의 각각 第16巻과

에도 불구하고 『쓰레즈레구사』는 여전히 중요한 작품이었다. 이는 유교적이거나 도교적인 단들의 내용이 부각되며 독립적으로도 향수될 수 있는 작품 특성 때문이기도 하였다. 이후에도 시대의 이데올로기를 반영한다고 할 수 있는 교과서 목록에서 『쓰레즈레구사』는 누락되는 예 없이 꾸준히 실렸으며 일본을 대표하는 고전으로 취급되었다.

근대 이후에도 『쓰레즈레구사』 연구는 연구자들의 주석작업을 중심으로 꾸준히 지속되었다. 우선 메이지 말기 우쓰미 고조(内海弘藏)의 『쓰레즈레구사 평석(徒然草評釈)』(1911)과 누나미 게이온(沼波瓊音)의 『쓰레즈레구사 강화(徒然草講話)』(1914) 정도가 주목할 만하다. 『평석』은 겐코를 일본에 유래가 드문 취미론자(趣味論者)로 보고 『쓰레즈레구사』라는 작품의 전체상을 하나의 주제로 파악하려는 점에서 평가할 수 있지만, 지나친 취미 일원화로 귀결시킨 결과로 시대 속의 겐코나 시대 속의 『쓰레즈레구사』를 읽어내지 못하고 있다. 또한 『강화』는 구어역과 평을 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개성적인 연구서라 할 수 있으나, 개인적 감개를 주로 기록하여 연구서라기보다는 감상문적이다.

그 다음 등장한 것이 다치바나 준이치(橋純一)의 『쓰레즈레구사 통석(徒然草通釈)』(1938~1941)이다. 상세한 고증과 치밀한 어휘해석에 중점을 두었으며 처음으로 『쓰레즈레구사』의 성립연대를 치밀하게 추정하여 이후 작품 성립론의 기반을 이룬 주석서이다. 『통석』 이후 주석서들은 작품내용을 어떻게 읽을까 보다는 정확한 어휘해석과 고증의 경향으로 경도되어 갔다.

한편에서는 근대문학자들이 『쓰레즈레구사』에 관심을 보이며 향수사라고 할 만한 작업이 이루어졌는데 요사노 아키코(与謝野晶子)는 『신역 쓰레즈레구사(新訳徒然草)』를 통해 『쓰레즈레구사』를 알기 쉬운 구어로 완역하고, 단편소설로 겐코라는 인물을 그려내기도 했다.¹⁶⁾ 또한 사토 하루오(佐藤春夫)는 겐코를

第1卷(1968.5.)에 의한다. 또한 『徒然草評論』(土岐善麿(1943) 『田安宗武 第2冊』, 日本評論社)이라는 글을 통해 『쓰레즈레구사』의 집필동기가 순수하지 못하다거나 일부러 모호하게 집필한 태도, 초점이 명백하지 않은 점 등을 거론하며 문학서라기보다 사상서로서 『쓰레즈레구사』를 파악하려 한 18세기 가인 다야스 무네타케(田安宗武, 1715~1771)의 비판도 있었다.
16) 『가다랭이(鯉)』(1931)라는 작품으로 『쓰레즈레구사』 제119단을 중심소재로 삼아 시대 풍조에 비판적인 장년의 지식인으로 겐코를 그려내고 있다. 이 작품은 与謝野晶子(2001) 『与謝野晶子評論著作集』第一五卷, 竜溪書舎, pp.150~154에 실려 있다.

‘심리파 작가’로, 그리고 『쓰레즈레구사』를 ‘심경장편소설(心境長篇小説)’로 평가하기도 했다.¹⁷⁾ 전반적으로 근대문학자들의 관심이 높았다고 하기는 어렵지만, 요사노 아키코나 사토 하루오 등에 의해 이미 이미지화된 『쓰레즈레구사』와 겐코상이 재생산되고 있다는 점은 지적해둘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1942년에 고바야시 히데오(小林秀雄)의 평론 『쓰레즈레구사(徒然草)』가 제시되면서 근대 이후의 『쓰레즈레구사』 연구사는 큰 전환의 계기를 맞게 된다. 고바야시가 이야기하는 『쓰레즈레구사』의 작품세계와 인간 겐코의 윤곽은 기존의 주석서와는 다른 굴절을 보인다. 그는 우선 『쓰레즈레구사』의 서단을 인용하고 다음과 같이 시작한다.

『쓰레즈레구사』라는 글을 원근법을 틀리지 않고 바라보기란 생각 외로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유의하는 것이 좋다고 여겨진다.

(徒然草といふ文章を、遠近法を誤らずに眺めるのは、思ひの外の難事である所以に留意するのはよい事だと思ふ)¹⁸⁾

『쓰레즈레구사』의 본질을 정확히 파악하기가 어렵다는 점에 주의를 환기시키며 시작하는 이 글은 『쓰레즈레구사』 연구사에서 특히 누나미 게이온의 『강화』를 반박하면서,¹⁹⁾ 겐코가 얼마나 예민하고 신랄한 작가였는지, 또한 이 작품의 문장이 얼마나 ‘비할 바 없는 명문(比類のない名文)’인지 강조하였다. 특히 이 평론은 쇼테쓰 이래로 지적된 『쓰레즈레구사』와 『마쿠라노소시』의 유사성을 부정하고, 은자수필의 계보를 잇는 것으로 여겨지던 『호조키(方丈記)』(1212)의 작자 가모노 조메이(鴨長明, 1155~1216)와 겐코의 근접성도 부정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그리고 고바야시는 이전까지 연구사에서 매몰되어 있던 제40단²⁰⁾ 전문(全文)을 인용하며 다음과 같이 글을 맺고 있다.

17) 佐藤春夫(1987) 『兼好と長明と』 『昭和文学全集 第一巻』, 小学館, pp.1022~1031

18) 小林秀雄(1987) 『徒然草』 『昭和文学全集 第九巻』, 小学館, pp.105~106

19) 『徒然草』에서 고바야시 히데오는 『쓰레즈레구사』 서단과 제40단 등에 누나미 게이온이 『강화』에서 평한 내용을 직접적으로 부정하고 있다.

20) 제40단은 이나바(因幡国) 지방의 다른 곡식을 먹지 않고 밤(栗)만 편식하는 처녀에 관한 이야기이다. 대개의 주석서들은 이 이야기를 겐코가 직접 들은 특별한 기담(奇譚)으로 간주하나, 그러한 딸을 시집보내지 않으려는 아버지의 마음은 『겐지모노가타리』를 위시한 선행문학

이것은 희귀한 이야기가 아니다. 무료한 마음이 얼마나 많은 것을 느끼고, 얼마나 많은 것을 말하지 않은 채 참았을까?

(これは珍談ではない。徒然なる心がどんなに沢山な事を感じ、どんなに沢山な事を言はずに我慢したか。)

고바야시의 『쓰레즈레구사』가 발표된 이후 반 세기가 경과하였으나, 겐코의 진의가 표현의 배후에 숨겨져 있음을 암시하는 ‘무료한 마음이 얼마나 많은 것을 느끼고 얼마나 많은 것을 말하지 않은 채 참았을까?’라는 마지막 문구는 작품의 집필에 즈음한 겐코의 진의를 언급한 부분이어서 많은 시사를 던져주고 있어 관심을 끈다.

1950년대 이후의 『쓰레즈레구사』 연구는, 니시오 미노루(西尾実), 야스라오 카 고사쿠(安良岡康作), 나가쓰미 야스아키(永積安明) 등²¹⁾이 이끌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한편 도미쿠라 도쿠지로(富倉徳次郎)와 가자마키 게이지로(風巻景次郎) 등은 작자 겐코의 기록을 추적함으로써 에도시대 이후 ‘만들어진 겐코상’이 아닌 실제의 겐코에 관한 고증을 시도했다.²²⁾ 이들에 의해 작품이 가진 내용적 측면에서 많은 부분들이 밝혀지거나 겐코를 둘러싼 유력한 설들이 제시되어 소위 『쓰레즈레구사』 연구의 정설로 일컬어지는 담론들이 형성되었다. 동시에 작품론 측면에서는 『쓰레즈레구사』의 장단별 구분은 완전히 고정되었으며, 원래 짧은 문장이 모여 작품을 이루었고, 하나 하나의 단이 고유한 주제와 구상을 가지고 있다고 여겨지게 된 것도 이 때였다.²³⁾

오랫동안 정설과 고증에 뒷받침된 해설 등에 의해 『쓰레즈레구사』 연구는 한

에서 그려진 부녀관계를 토대로 생각할 때 고바야시의 의견은 구체적인 논증은 없지만 시사적이라고 볼 수 있다.

21) 『方丈記・徒然草』(1957)(日本古典文学大系30, 岩波書店), 『中世文学の成立』(1959)(岩波講座日本文学史, 岩波書店), 『徒然草全注釈』(1968)上·下(角川書店), 『方丈記・徒然草・正法眼蔵随聞記・歎異抄』(1971)(日本古典文学全集27, 小学館), 『方丈記・徒然草』(1986)(完訳日本の古典37, 小学館), 『徒然草新訂』(1989)(岩波文庫) 등 현재 가장 많이 알려진 주석서들이 이들에 의해 출판되었다.

22) 그 결과물이 富倉徳次郎(1964) 『卜部兼好』(吉川弘文館), 風巻景次郎(1969) 『西行と兼好』(角川書店)와 같은 서적이다.

23) 이 시기의 대표적 연구서로 桑原博史(1976) 『徒然草研究序説』(明治書院)을 들 수 있다. 당시까지의 『쓰레즈레구사』 연구를 총정리하며 작품 해설에서 정설을 망라하고 있으므로 새로운 점은 거의 없지만, 치밀한 제본(諸本) 연구는 독보적이므로 참고가 된다.

동안 진전이 없는 듯 보이나, 1980년대에 들어 미키 스미토(三木紀人)²⁴⁾나 구보타 준(久保田淳)²⁵⁾ 등에 의해 작품해석의 다양한 가능성과 타문학, 특히 설화(說話)와 모노가타리(物語)와의 관계성이 점차 타진되기 시작했다. 이들의 주석서에서는 단과 단의 연결에 대해서도 간간히 논리적 연결을 파악하려는 시도를 볼 수 있고, 『쓰레즈레구사』와 타장르와의 영향관계에 대한 전거를 각 단에서 제시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²⁶⁾

2. 『쓰레즈레구사』 연구사의 경향과 문제점

(1) 주석서 중심의 작품연구

이처럼 에도 시대 이후 현대에 이르기까지 방대한 『쓰레즈레구사』 연구가 축적되어 있어 그 경향에 대해 일괄하기는 어려우나, 우선 전반적으로 지적할 수 있는 사항은 『쓰레즈레구사』의 연구는 주석서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일 것이다. 주석서를 중심으로 연구가 진척되었기 때문에, 『쓰레즈레구사』를 일본 중세의 시대적 글쓰기라는 큰 의미에서 읽어내고자 한 연구는 매우 드물다.

바로 이 문제에 새로운 시점을 제시한 것이 바로 아라키 히로시(荒木浩)이며, 그의 논문²⁷⁾은 선행문학으로부터 받은 영향을 『쓰레즈레구사』 저단(序段)에 집중시켜 방대한 예를 동원함으로써 서단의 사적(史的) 연구에 획기적 기원을 열었다. 서단의 문제에 집중된 아라키의 연구성과에 촉발되어 아사키 도시코(朝

24) 三木紀人(1979~1982) 『徒然草(一)~(四) 全訳注』, 講談社

25) 구보타(久保田)도 70년대에는 『中世文学の世界』(1972), 東京大学出版会, 『西行長明兼好一草庵文学の系譜』(1979), 明治書院 등에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하여 『쓰레즈레구사』를 파악했으나 1980년대 후반부터 『徒然草必携』(1987), 学灯社, 『方丈記・徒然草』(1989), 新日本古典文学大系, 岩波書店의 교주(校注)나 잡지 『国文学』의 연속해설(1978년 5월부터 현재도 계속) 등에서는 곳곳에서 참신한 해석을 시도하고 있다.

26) 보다 정확하게는 에도 시대의 고주석서와 야스라오카(安良岡)의 『徒然草全注釈』, 가자마키(風巻)와 도미쿠라(富倉)가 밝힌 겐코의 실생활 등을 기반으로 하여, 연구자 각자의 본령인 설화문학(미키(三木)의 경우)과 모노가타리 및 와카(구보타(久保田)의 경우)와의 관련성에 착안한 해설을 제시하고 있다.

27) 荒木浩(1989) 『心に思うまを書く草子』(上)・(下) 『国語国文』663・664号, 京都大学国文学会, pp.11~12

木敏子)는 『쓰레즈레구사』의 문체에 대해 분석하였으며 헤이안 이후의 텍스트들과의 광범위한 관련성에 대해 고찰했다.²⁸⁾ 다만 아사키의 고찰은 ‘수필’로서의 『쓰레즈레구사』를 전제로 하였기 때문에 ‘가인 겐코’가 가졌을 와카적 기반에 대한 언급이 불충분했고, 통시적인 문체의 영향관계에서는 새로운 지평을 열었으나 시대와 작품의 관계가 유기적으로 파악되지 못한 아쉬움이 보인다.

이 외에도 역사학자들에 의한 주목할만한 『쓰레즈레구사』 연구도 존재하나,²⁹⁾ 일본내 문학연구자들에게 그 연구성과가 폭넓게 수용되거나 원용된 예는 보이지 않는다.

『쓰레즈레구사』와 관련된 한국내의 연구를 살펴보면, 개별 단들의 특징적인 내용에 대한 고찰이 주를 이루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무상관, 처세훈, 미의식 등의 주제와 관련된 단들을 발췌하여 논증하는 시도가 많았다고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의욕적인 연구가 잇따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중세라는 시대적 산물로서의 통일적 글쓰기로 『쓰레즈레구사』를 파악한 연구는 없었던 것이 실정이라 하겠다.

(2) 창조된 작자 겐코상(像)

일반적으로 『쓰레즈레구사(徒然草)』는 가마쿠라 시대(鎌倉時代) 말기에서 남북조 시대(南北朝時代)에 이르는 시기에 요시다 겐코(吉田兼好)에 의해 쓰여진 작품이라 일컬어진다.³⁰⁾ 은자문학 또는 초암(草庵)문학으로 알려진 『쓰레즈레구사』는 가장 애독되는 일본 굴지의 고전 중 하나이며, 헤이안 시대(平安時代)의 『마쿠라노소시(枕草子)』와 함께 일본 고전수필의 쌍벽으로 상찬되어 왔다. 또한 불교를 근거에 두고 은둔생활을 기반으로 하여 무상(無常)의 이치를

28) 朝木敏子(2003) 『徒然草というエクリチュール』, 清文堂

29) 고미 후미히코(五味文彦)(1997) 『『徒然草』の歴史学』, 朝日新聞社나 스에키 후미히코(末木文美士)(1997) 『『徒然草』における仏教と脱仏教』 『文学』, 岩波書店 등은 역사학자들인데 불교사상과 중세사회의 경제적 문제, 동시대의 작자미상의 에마키(絵巻) 등 다양한 측면에서 『쓰레즈레구사』 전체 혹은 일부와의 관련성을 논했다.

30) 『쓰레즈레구사』 정립에 관해서는 정확한 근거가 없어 확정할 수는 없는 상태이다. 일반적으로 집필 시작 시점을 1329년경으로 보고, 집필이 끝난 시점에 관해서는 1331년 이전이라고 보는 설(橋純一)부터 1345년 이후로 볼 수 있다는 설(宮内三二郎)까지 존재한다.

독창적으로 완성한 수필의 최고봉으로 평가되고 있다.³¹⁾ 이와 더불어 작자 겐코도 『쓰레즈레구사』의 작자로서 ‘인생의 달인(達人)’³²⁾으로 불리우며, 시공을 초월한 처세훈(処世訓)과 무상의 진리를 설파하는 은둔자로 인식되었다.

작자 겐코가 활동한 시기는 동란의 시대였던 일본 중세였다. 시대를 반영하는 글쓰기로서 문학작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난세가 가진 특징을 살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우선 헤이안 시대 중기 이후의 큰 변화라고 한다면 일본사회는 후지와라(藤原) 일족에 의한 섭관(摂関) 정치에서 원정(院政)³³⁾으로 정치적 형태의 변화를 겪게 되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그리고 헤이안 말기로 접어들면서 여기에 무가(武家) 세력이 합세하여 혼란스러운 사회상이 창출되었다. 12세기에 헤이케(平家)와 겐지(源氏)로 대변되는 무사가문에 의해 주도되었던 겐페이(源平) 시대는 결국 미나모토노 요리토모(源頼朝)가 무가정권인 가마쿠라막부를 열면서 일단락되고, 여기에서 통칭 일본의 중세시대가 시작되었다. 패권을 건 각 세력의 이합집산은 13세기 후반 몽골의 침공을 겪으며 격심해졌고, 이후 그 가장 첨예한 대립의 형태로 황통(皇統)이 둘로 갈리는 남북조시대를 낳기에 이르렀다. 남북조의 동란을 계기로 이후 천황이나 신불(神仏)의 권위는 현저히 저하되었고 사람들의 현실인식을 형성시키는 누미노제(numinose)³⁴⁾ 역시 변화하게 되었다³⁵⁾. ‘이형(異形)의 왕권(王權)’³⁶⁾으로도, ‘『다이헤이키(太平記)』의 시대’로도 일컬어지는 이 시기는 일본 사회에 근본적인 전환이 초래된

31) 安良岡康作(1981) 『中世的文芸の理念』, 笠間書院, pp.61~80

32) 桑原博史(1983) 『兼好法師—人生の達人』, 新典社, pp.114~124

33) 태상천황(太上天皇) 즉 상황(上皇)이나 법황(法皇)이 집정하는 정치형태를 말한다. 시라가와 상황(白河上皇)의 전제정치 하에 정착한 정치 형태를 주로 의미하며 시기구분에는 다양한 의견이 존재한다. 『日本史大事典』, 平凡社, 1992 『院政』항목 참조)

34) 누미노제(numinose)는 독일의 철학자 루돌프 오토가 그의 저서 『성스러운 이해(Das Heilige)』에서 새로이 만든 철학용어로, ‘무서운 신비’ 즉 외경심과 권위, 세력을 느끼게 하는 절대타자(絶対他者)로서의 신비를 말하는 것이다. 20세기 초에 등장한 이 신학적 용어는 당시의 비합리주의와 종교부흥의 일면을 대표하는 말이었다. 서양의 중세뿐 아니라 인도를 중심으로 하는 동양의 신비사상도 함께 소개하였기 때문에, 제1차 세계대전 후 동양의 종교학 계에도 크게 영향을 끼쳤다. 심리학자 융도 인간의 마음 깊숙이 있는 원형에 닿을 때, 근원적 두려움과 동시에 매혹을 느낀다는 것을 기술하고 있다. 외포(畏怖)와 매혹(魅惑)이 동시에 내포된 개념이므로 중세까지 일본인들이 신불이나 천황에 대해 느낀 권위와 외경심 및 성스러운 감정은 누미노제라고 일컬을 수 있을 것이다.

35) 網野善彦(1998) 『中世の世界とは何だろうか』, 朝日新聞社, pp.103~111

36) 網野善彦(2002) 『異形の王権』, 平凡社, pp.197~247

시기였던 것이다.

이러한 격동기의 문예는 역사와 연동하여 다양하게 펼쳐졌으며 그 역사 속에 살아있는 사람들이 곧 문예의 주체자들이기도 했다. 겐코는 바로 그들 중 한 사람이었으며 남북조시대에는 ‘와카 사천왕(和歌四天王)’의 한 사람으로 칭해질 정도로 가인(歌人)으로서 이름도 높았다. 사료(史料) 등에 근거를 두고 확인할 수 있는 겐코는 신관(神官)가문의 출신으로, 20대에 귀족가문인 호리카와(堀川)가문의 게이시(家司)³⁷⁾였고, 육위(六位)의 구로우도(蔵人)³⁸⁾까지 역임한 인물이었다. 30대에는 이미 출가했던 것으로 보이며 출가의 원인에 대해서는 설이 많으나 명백하게 알 수 있는 근거는 없다. 니조 다메요(二条為世)의 주도로 편찬된 칙찬집(勅撰集) 『쇼쿠센자이슈(統千載集)』(1319)에 겐코의 와카가 한 수 실리면서 그는 30대에 칙찬가인이 되었고, 이후 재능있는 니조파(二条派) 가인으로 중시되었다.³⁹⁾

가인으로서 겐코가 활동한 시기는 쇼추(正中)의 난,⁴⁰⁾ 겐코(元弘)의 난⁴¹⁾과 같은 천황까지 개입된 대대적인 동란의 와중이었다. 이 때 『쓰레즈레구사』가 쓰여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겐코의 생전에 『쓰레즈레구사』의 작자로서 알려지거나 『쓰레즈레구사』가 널리 읽혔던 흔적은 보이지 않으며, 만년에 아시카가 다카우지(足利尊氏), 고노 모로나오(高師直) 등의 세력가들과 어울려 와카를 남기는 등 유력가인으로서의 행적만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겐코는 『쓰레즈레구사』 외에도 『겐코법사집(兼好法師集)』이라는 개인 가집(家集)도 남겼다. 요컨대 겐코는 활동 당시에는 가인으로서밖에 알려지지 않았으나, 에도(江戸) 시대

37) 원정기 무렵부터 천황가나 섭관(摂関), 대신(大臣), 삼위(三位) 이상의 귀족가문의 사무를 보던 직분. 이에 대한 고찰은 가자마키 게이지로(風巻景次郎)의 『西行と兼好』(1971)(角川書店) 중 『家司兼好の社会圏』에 상세하다.

38) 천황과 천황가 가까이에서 사적인 일을 처리하거나 궁중의 물자 조달이나 경비 등 대소 잡사에 종사한 관리. 겐코가 구로우도로서 모신 천황은 고니조천황(後二条天皇, 1301~1308 재위)이었다.

39) 富倉徳次郎(1992) 『卜部兼好』, 吉川弘文館, pp.25~69

40) 1324년 고다이오 천황(後醍醐天皇)과 히노 스케토모(日野資朝) 등이 막부를 토벌하고자 도모했으나 이 의도가 사전에 밀고되어 천황의 측근들이 참형되고 스케토모는 체포되어 유배당함으로써 일단락된 사건.

41) 1331년 다시 고다이오 천황의 막부토벌 계획이 기도되었으나 사전에 발각되어 스케토모 등이 참형되고 천황은 유배. 이후 유배지를 탈출한 고다이오 천황을 중심으로 세력이 규합되어 1333년 가마쿠라 막부를 쓰러뜨린 사건.

에 들어서 주로 『쓰레즈레구사』의 작자로서 인식되었던 것이다.

이처럼 14세기에 가인으로서 활동한 사적(事跡)에서 보이는 겐코와, 자유로운 산문정신을 수필로 구현한 『쓰레즈레구사』의 작자 겐코법사라는 이미지 사이에는 거리가 있다는 점도 생각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거리의 존재는 가마쿠라 말기에서 남북조로 이행하는 시기의 사건이나 사회상과 겐코의 『쓰레즈레구사』가 유기적으로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간과한 연구경향에 기인할 것이다.

『쓰레즈레구사』는 17세기 초에 판본으로 간행된 유포본(流布本) 『가라스마루본(烏丸本)』⁴²⁾이 선본(善本)으로서 오늘날까지 가장 널리 읽혀지고 있다. 그런데 『쓰레즈레구사』에서 현재 보이는 단의 구분, 즉 작품을 244개의 단으로 구분한 것은 17세기 중반의 고주석서들에서 시도되고 정리된 구분법이 거의 그대로 답습된 것이다. 현존하는 최고의 사본인 『쇼테쓰본(正徹本)』⁴³⁾에는 구두점이 없고 명확한 장단의 구분도 없으며 개행만 보일 뿐이다. 그럼에도 유포본과 고주석들에 의한 구두점이나 단의 구분 등이 현재까지 거의 그대로 받아들여져 『쓰레즈레구사』의 단들은 독립적으로 향수되는 경향이 강했다. 이러한 경향은 결국 작품의 전체상이나 단들 사이의 유기적 관계를 중시하지 않는 문제를 낳게 되었다.

3. 정전화와 『쓰레즈레구사』의 본질 사이

(1) 작품 정전화의 현상

이상과 같이 『쓰레즈레구사』의 연구사를 검토한 결과, 다음 두 가지 특기할 만한 사실을 지적할 수 있겠다. 우선은 『쓰레즈레구사』는 그 방대한 연구사에 비해 원정기(院政期)나 동시대의 타작품과 긴밀한 연동을 가진 작품으로 파악하려는 시도가 부족했기에 상당히 문학사 속에서 고립되어 있다는 점이다. 또

42) 호소카와 유사이(細川幽齋)에게 사사한 가인 가라스마루 미쓰히로(烏丸光広)가 구두점과 청탁음을 붙인 『쓰레즈레구사』의 본문으로, 1613년에 간행되었다.

43) 『쇼테쓰본』(靜嘉堂文庫藏)을 영인한 책자가 吉田幸一·大西善明共編(1972) 『徒然草上·下』(笠間書院)이다.

하나는 에도시대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정전의 목록에서 배제된 적이 없다는 아이러니한 측면이다.

위의 첫째 문제점의 사유는, 겐코의 시대에는 존재하지 않았을 ‘수필’이라는 장르의식으로 『쓰레즈레구사』를 규정하여 일본 굴지의 고전으로 추앙하고자 하는 ‘정전에 대한 권위화의식’이 작용한 때문이라 생각된다. 그리고 위의 두 번째 사항은 『쓰레즈레구사』의 장단별 내용이 다기에 걸쳐져 있다는 측면에 이와 같은 ‘정전에 대한 권위화의식’이 작용하면서 시대에 따라 이데올로기에 부응할 수 있는 단을 중심으로 향수될 수 있었던 작품향수상의 특징에 연유한다.

시대상황과 겐코의 실생활을 역사적 배경과 더불어 고증한 도미쿠라와 같은 연구자조차도 『쓰레즈레구사』와 시대에 관해 언급할 때는 다음과 같은 태도를 보인다.

아마 이 겐코(元弘)의 난(亂)이 일어난 시대에는 겐코뿐 아니라 당시의 승려가 인들, 돈아(頓阿)·조벤(淨弁)·게이운(慶運) 등은 정치적으로는 이 시대의 움직임에는 전혀 교섭이 없었음에 틀림없다. …… 그들은 아무런 정치적 역할을 갖는 자들이 아니었다는 뜻이다. 아마도 교토(京都)땅에서 이 동란을 방관하는 데에 머물러 있었던 것이리라.

(おそらく、この元弘の乱の時代には、兼好のみならず、当年の緇流歌人、頓阿・浄弁・慶雲などは、政治的にはこの時代の動きには全く没交渉であったにちがいない。……彼らは何等の政治的役割をも持つものではなかったという意味なのである。おそらくは、京都の地にあつて、この動亂を傍観するにとどまったのであろう。)44)

『쓰레즈레구사』에 현실적 사건이나 사회상에 대한 비판이 표면에 드러나지 않는다는 감상안으로, 겐코 등이 시대의 움직임과 관계가 없다거나 방관자였다는 추측을 하고 있다. 『쓰레즈레구사』의 작자로서의 겐코상과 정치적 핵심인물들과 같은 와카의 장(場)에서 가인으로서 어울리던 겐코의 모습이 분리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고바야시 히데오가 『쓰레즈레구사』의 본질과 관련된 중요한 담론을

44) 富倉徳次郎(1992), 전계서, p.65. 인용문 내의 ‘……’는 이하 생략의 기호로 사용한다.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누구와도 닮지 않은(誰にも似てゐない)’⁴⁵⁾ 인간으로 파악한 겐코상만이 현대에도 지속적으로 이어져, 가토 슈이치(加藤周一)의 『일본문학서설(日本文学序説)』로 대표되는 오늘날의 『쓰레즈레구사』~평가로까지 연결되는 면이 있다. 가토는 다양한 소재를 이와 같이 한 권의 저서에 요약한 예는 『쓰레즈레구사』 외에 전무후무하다고 보면서, 다음과 같이 『쓰레즈레구사』를 ‘동류에서 벗어난 문학(仲間外れの文学)’으로 파악하고 있다.

집단내부의 세력싸움 때문에 밖으로 내몰린(혹은 탈출한) 구성원들도 있다. …… 그들의 일부는 궁정 내지 선원(禪院) 집단을 떠나서 동류내의 문학세계와는 전혀 다른 독특한 세계를 발견하고 동류에서 벗어난 문학을 만들었다.

(しかしその集団内部の勢力争いのために、外部へ投げ出された(あるいはみずから脱出した) 成員もある。……彼らの一部は、宮廷乃至禪院の集団を難れると、仲間内の文学の世界とは全くちがう独特の世界を発見して、仲間外れの文学を作った。)46)

그리고 그 대표적인 예로 14세기 전반의 『쓰레즈레구사』와 15세기 후반의 잇큐(一休, 1394~1481)가 쓴 『교운슈(狂雲集)』를 거론하며 고독한 개인의 사업으로서 『교운슈』에 선행하는 작품이 『쓰레즈레구사』라고 말한다. 『쓰레즈레구사』와 『교운슈』의 계보성을 이끌어낸 것은 중요한 지적이라고 할 수 있고 『쓰레즈레구사』를 ‘산문화된 렌가(散文化された連歌)’로 파악한 점은 시사적이다. 그러나 ‘가인 겐코’가 와카적 세계를 중시하고 니조파라는 와카계통의 굴지의 가인이었다는 점과 그 가집인 『겐코법사집(兼好法師集)』의 존재를 간과하고 서술했다는 점, 가토 자신이 렌가(連歌)를 낮게 평가하는 점 등은 문제점을 내포한다. 출가했어도 궁정사회로부터 멀리 떨어지지 않았고, 와카의 세계에서 니조 다메요나 돈아(頓阿)를 중심으로 한 ‘동류(仲間)’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삼은 겐코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쓰레즈레구사』에는 전체의 5분의 1에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종래의 연구에서는 비교적 소홀히 취급되던 이른바 유직고실(有職故実)에 관한 내용도 있고, 기

45) 小林秀雄, 전계론(『徒然草』)

46) 加藤周一(1992) 『日本文学史序説』(上), 筑摩書房, pp.278~280

담(奇譚)과 같은 설화적 내용, 인물을 둘러싼 일화, 주관적 코멘트가 일체 배제된 전문담으로 보이는 내용 등도 있다. 작품 안에 엄연히 생체를 띠며 존재하고 있지만 독립적, 혹은 개별적인 내용으로 다루어지거나 사실여부와 대조하여 의미파악에 그친 경우도 많으며, 겐코의 가치평가가 드러나지 않은 유직고실적 내용은 메모처럼 취급되어 일방적으로 간과되거나 무시되기도 했다. 무엇보다 유기적인 한 작품으로 통괄하여 파악하려는 시도가 거의 없었고 고증이 힘든 내용은 수수께끼처럼 남겨졌다. 이러한 경향은 한국내 『쓰레즈레구사』 연구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2) 『쓰레즈레구사』 연구의 전망

『쓰레즈레구사』의 본질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이 작품이 일본의 중세, 그 중에서도 가마쿠라 말기에서 남북조시대에 걸친 대격변의 시대에 탄생되었다는 사실이 갖는 의미 파악이 우선시되어야 한다. 헤이안 시대부터 원정기(院政期) 후반까지 시도된 많은 글쓰기로부터 『쓰레즈레구사』가 어떤 측면을 수용했는지, 또한 동시대의 문학들과 어떠한 위치 관계에서 논해질 수 있는지 천착할 필요가 있다. 그 과정에서 『쓰레즈레구사』가 탄생하게 된 다양한 문학적 배경을 확인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럼으로써 독보적 고전수필이 아니라 풍부한 선행문학의 토양에서 제조건을 취사선택한 겐코의 글쓰기로서 『쓰레즈레구사』의 모습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겐코는 『쓰레즈레구사』대에서 죽음과 삶, 과거와 현실, 현실의 다양한 규범들과 같은 경계(境界)에 대해 끊임 없이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한 담론에 보이는 그의 인식체계를 분석함으로써 표면에 드러내지 못했던 겐코의 동시대라는 현실을 읽어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가인으로서의 겐코와 수필작가로서의 겐코라는 두 가지 인물상(像)이 배태된 점에 의문을 가지고, ‘가인 겐코’의 글쓰기로서 와카와 긴밀할 수밖에 없었던 『쓰레즈레구사』라는 측면에서 작품을 재조명해 볼 필요가 있다. 당시 가인으로서밖에 인식되지 않던 겐코가 현대에 이르면서 『쓰레즈레구사』 작자로서의 이미지가 강화되었다는 점은, ‘가인 겐코’의 글쓰기라는 측면에서의 연구가 미미했던 결과이기도 하다. 와카가 겐코에게 어떤 양태로 수용되었고 표출되었는

지를 면밀히 검토하는 것도 『쓰레즈레구사』의 본질에 접근하는 데에 중요한 작업이 될 것이다.

그리고 ‘수필’이라는 현대적 장르의식에 간혀 있는 『쓰레즈레구사』를 일본 중세의 작품이라는 포괄적 개념에 풀어놓고 접근해야 한다. 그럼으로써 선행 및 동시대 문예와 『쓰레즈레구사』의 위치관계가 보다 명백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쓰레즈레구사』를 이루는 다양한 내용을 제재로서는 인정하되, 단과 단을 독립된 것으로 간주하는 오랜 연구사의 습관에서 벗어나 가능한 한 ‘연속읽기’⁴⁷⁾로 파악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

『쓰레즈레구사』라는 글쓰기는 독자로 하여금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고 느끼게 만드는 상징성이나 암시성, 그리고 환기력을 갖는 특징이 있다. 고바야시가 막연히 언급한 겐코가 ‘말하지 않고 참은’ 것이란 바로 이러한 상징성이나 암시성, 환기력일 것이다. 이러한 『쓰레즈레구사』의 여백을 파악해야만 작품의 본질에 가까워질 수 있음은 자명하다. 그 여백에 에도시대 이후 현대에 이르기까지 독자들이 간과한 헤이안 시대 이후 겐코와 동시대인들의 공동의 토포스(topos)⁴⁸⁾가 놓여 있기 때문이다.

문맥에 문법적 난점이 비교적 적어 최선본(最善本)이라 칭해지는 유포본 『가라스마루본』은 현재 익숙한 단구분이 가해져 있다.⁴⁹⁾ 이 가라스마루본을 위주

47) 이전에도 일부 단에 전후 한 두 단의 관련성을 지적한 연구는 종종 있었으나 본격적으로 작품 전체에 ‘연속읽기(連続読み)’를 제창한 것은 시마우치 유코(島内裕子)이며, 『徒然草の変貌』(1992)(ベリカン社)에서 통칭 제1부까지 연속성을 갖던 『쓰레즈레구사』가 제2부 이후로 문체의 변모를 겪는다는 것을 논증하고 있다. 다만 2부에서도 연속성 있는 부분을 많이 읽어낼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48) 토포스(topos)는 원래 문학에서 몇 개의 모티브가 반복되어 이루어내는 고정형이나 진부한 문구를 지칭하는 개념. 그리스 철학에서 토포스는 수사학이나 기억술에서 중시되며 기억을 재생하는 중요한 요소로 취급된다. 주로 <장(場)>이라는 말로 옮겨지지만, 座談會「語りと書くこと—平家物語へ向けて—」(『日本文学』(1990)日本文学協会)에서 야마모토 기치조(山本吉左右)는 토포스가 일본어의 <場(ば)>를 넘어서 언어와 언어의 조합이 표현의 기반이 되고 발상이나 상념, 심정, 사상의 지평이 되는 것이라 말했다. 이 견해를 근거로 말하기와 글쓰기 등에서 화자(話し手, 語り手, 書き手)와 독자(聞き手, 読み手)가 서로 공동되게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허구의 관념과 배경에 대해 토포스라는 개념을 이끌어내서 사용한다.

49) 『쓰레즈레구사』의 겐코 자필본(自筆本)은 발견되지 않고 있으므로 원형이 어떠한지는 알 수 없다. 단의 분리과 넘버링 과정에는 『곤교쿠슈(崑玉集)』에 보이는 ‘겐코법사 쓰레즈레구사는 …… 쓰다 버린 글, 혹은 와카의 이러저러한 말도 있었는데, 대개는 암자의 벽에 붙어있었습니다(兼好法師つれづれ草は……書すてられしもしほ草、あるは歌のそぞろこと葉も候にや、

로 단별로 끊어져서 해석되던 기존의 경향에서도 벗어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현존하는 최고 사본인 쇼테쓰본에는 약간의 개행은 있으나 장단의 번호는 없는 것으로 미루어 『쓰레즈레구사』는 처음부터 단의 분리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쓰레즈레구사』를 고찰하는 데에 있어 ‘수필’이라는 장르의 골격을 미리 작품에 씌우지 않을 것과 단과 단의 분리보다는 연결과 관련에 초점을 두어 ‘연속읽기’로 접근하는 것을 연구방법의 대전제로 삼는 것이 유효할 것이다. 이렇게 연속읽기를 고려하여 『쓰레즈레구사』를 접할 때 가장 먼저 직면하게 되는 것은 작품 서단(序段)에서 비롯되는 모두부(冒頭部)의 의미에 대한 문제일 것이다. 다음은 서단과 제1단 앞부분이다.

무료한 채 하루종일 벼루를 마주 하고 앉아 마음에 떠올랐다 사라지는 이리저러한 것들을 하릴 없이 적고 있자니 이상하게도 미칠 듯하다.

헌데, 이 세상에 태어나니 바람만한 것이야말로 많은 것 같다. 천황의 지위는 너무도 경외스럽다. 황자, 황손 등 후예까지 인간의 혈통이 아닌 것이 실로 존귀하다. 섭정관백(摂政関白)의 모습은 말할 것도 없고 그 다음 계급도 도네리(舍人) 등의 직위를 받은 정도는 대단해 보인다. 그 자식이나 손주까지는 영락하더라도 여전히 기품이 있다. 그보다 아래 계급의 사람은 신분에 따라 때를 잘 만나 거들먹거리는 얼굴을 해도, 스스로는 훌륭하다고 생각하겠지만 아주 실망스럽다.

(つれづれなるままに、日ぐらし硯に向かひて、心にうつりゆくよしなしごとをそこはかとなく書き付くれば、あやうこそ物狂おしけれ。

いでや、この世に生れ出でば、願はしかるべきことこそ多かめれ。御門の御位はいともかしこし。竹の園生の末葉まで、人間の種ならぬこそやむことなき。一の人御有様はさらなり、ただ人も、舍人など給はるきははゆゆしと見ゆ。その子、孫までは、はふれにたれど、猶なまめかし。それより下つ方は、ほどにつけつつ時に遇ひ、したり顔なるも、身づからはいみじと思ふらめど、いとくちをし。)50)

おほくは庵の壁をはられて候)라든지 ‘쓰레즈레구사는 요시다에서 대개 벽에 붙여져 있거나 혹은 경전 등을 베껴 쓴 종이 뒤에 있는 것을 가지고 왔다(つれづれ草は吉田にておほくは壁にはられ、あるは経卷などをうつしものせしうら書にてありしをとりてきぬ)’라는 내용을 참고로 할 수 있겠다. 그러나 『곤교쿠슈』는 위서(偽書)로 기사의 신빙성은 높지 않다. (이상 『곤교쿠슈』의 영인 인용은 青木賢豪(2000) 『『崑玉集』の紹介』(『古代中世文学論考』第四集 新典社)에 따른다.)

『쓰레즈레구사』의 내용에 대해 가장 빈번하게 내려지는 평은 무상의 문학이라든가 처세의 지침서라는 점이다. 그러나 이것이 작품의 어떤 일면을 부각시켜 작품 전체에 부연하려는 경향이 강하게 작용한 것임은, 위의 서단과 제1단을 둘러싼 모두부의 해석과 매치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미 난점을 드러낸다.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욕망에 충실한 인간론을 펼치고자 하는 작품의 도입이 무상과 교훈에 가려지고 있어 통일된 작품으로서 인식되는 것을 방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선 작품전체의 본질에 직접적이고 다대한 영향력을 갖는 서단부터 재음미해야 한다. 이것이 『쓰레즈레구사』라는 작품이 탄생하게 된 문학적 필연성을 살펴보는 작업과 상통하기 때문이다. 그대로 작품의 제명(題名)이 될만큼 유명한 기필어(起筆語)인 ‘무료함(つれづれ)’부터 ‘이상하게도 미칠 듯하다(あやしうこそ物狂おしけれ)’로 매듭지어지는 심리 및 의식의 변화에 주목하여 글쓰기에 대한 의식을 어떻게 읽어낼 수 있는지를 이전시대부터 이어져 온 문예기반과의 영향관계를 통해 살펴볼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남북조시대의 와카 사천왕의 한 사람으로 꼽히던 니조과 가인에게 기대되는 문예적 교양과, 『쓰레즈레구사』의 곳곳에 보이는 다독가적인 측면에서 겐코가 이전 시대 및 동시대의 작품들을 상당수 접했다는 것은 거의 확실하다. 그렇다면 그가 무엇인가를 쓴다는 서기행위(écriture)에 대해 가졌던 의식이, 다른 장르의 작품에 비해 어떤 유사점과 상이점을 만들어 내고 있는지 밝힐 수 있을 것이다.

4. 소결

이상을 통해 긴 역사를 가지면서도 지금까지 치우친 향수경향을 보여온 『쓰레즈레구사』의 연구사를 고찰해 보았다. 그 결과 『쓰레즈레구사』의 본질에 접근하고, 선행문학과 동시대 문학과 연결하며, 나아가 일본 중세라는 시대와 글쓰기 문제로까지 시야를 확대할 토대를 다지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이해의 시각이 필요불가결하다고 여겨진다. 즉, 중세 당시의 서기행위와 광기, 그리고 시

50) 久保田淳 校注(1989) 『方丈記 徒然草』(新日本古典文学大系39), 岩波書店, p.77~78

대의 문제까지 고찰의 범주에 넣어 보다 다양하고도 폭넓은 이해의 조명을 작품에 비추어 보아야 한다는 점이다.

그동안 간과되었던 원정기(院政期) 문학과와 수용관계를 문체와 용례로 밝혀 보는 것이 유용하며, 동시대 타작품과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도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쓰레즈레구사』라는 글쓰기를 통해 선행문학의 토양이 중세에 어떻게 수용되었고, 동란의 현실을 어떤 식으로 반영할 수 있었는지 고찰함으로써, 이전의 장르에 묶인 문학사와는 다른 일본 중세문학의 양상을 새롭게 전망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어야 한다. 나아가 일본이 자국문학으로서 정전화시키기 위한 논리에서 연구한 『쓰레즈레구사』를 위시한 일본의 중세문학사를 보다 객관화함으로써, 보편적 글쓰기로서의 일본문학의 본질과 그 연구방법에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青木賢豪(2000) 『崑玉集』의紹介, 『古代中世文学論考』第四集, 新典社, pp.268~299
- 朝木敏子(2003) 『徒然草というエクリチュール』, 清文堂, pp.1~53, pp.123~171
- 網野善彦(1998) 『中世的世界とは何だろうか』, 朝日新聞社, pp.103~111
- _____ (2002) 『異形の王権』, 平凡社, pp.197~247
- 荒木浩(1989) 「心に思うままを書く草子(上)」 『国語国文』663, 京都大学国文学会, pp.1~17
- _____ (1989) 「心に思うままを書く草子(下)」 『国語国文』664, 京都大学国文学会, pp.35~48
- 市古貞次(1982) 『日本文学史概説』, 秀英出版, p.101
- 稲田利徳(1977) 「徒然草の享受はなぜ遅れたか」 『国文学』, 学灯社, pp.102~108
- 遠藤好英(1998) 「『徒然』の語史—一文章史の観点から見た問題点—」 『日本文学ノート』第33号, pp.198~206
- 風巻景次郎(1969) 『西行と兼好』, 角川書店, pp.181~254
- 加藤周一(1992) 『日本文学史序説』(上), 筑摩書房, pp.278~280
- 久保田淳(1972) 『中世文学の世界』, 東京大学出版会, pp.165~190
- _____ (1979) 『西行長明兼好一草庵文学の系譜』, 明治書院, pp.171~253
- _____ (1987) 『徒然草必携』, 学灯社, pp.35~122

- _____ 校注(1989) 『徒然草』(新日本古典文学大系), 岩波書店, pp.77~78
- 桑原博史(1983) 『兼好法師—人生の達人』, 新典社, pp.89~124, pp.238~242
- _____ (1976) 『徒然草研究序説』, 明治書院, pp.109~245
- 宮内三二郎(1977) 『とはずかたり・増鏡・徒然草新見』, 明治書院, pp.226~534
- 福田秀一(1975) 『中世文学論考』, 明治書院, pp.248~250
- 久松潜一 校注(1976) 『正徹物語』, 『歌論集・能楽論集』(日本古典文学大系65), 岩波書店, pp.187~188. p.208
- 小林秀雄(1987) 『徒然草』, 『昭和文学全集 第九巻』, 小学館, pp.105~106
- 五味文彦(1997) 『『徒然草』の歴史学』, 朝日新聞社, pp.9~20, pp.246~261
- 佐藤春夫(1987) 『兼好と長明と』, 『昭和文学全集 第一巻』, 小学館, pp.1022~1031
- 島内裕子(1992) 『徒然草の変貌』, ペリカン社, pp.151~183.
- _____ (1997) 『徒然草注釈書の世界—近世以降』, 『国文学 解釈と鑑賞』, pp.114~120
- _____ (1999) 『『徒然草寿命院抄』の注釈態度』, 放送大学研究年報, pp.254~276
- _____ (2001) 『徒然草古注釈書の方法—『徒然草寿命院抄』から『野槌』へ—』, 放送大学研究年報, pp.188~206
- 末木文美士(1997) 『『徒然草』における仏教と脱仏教』, 『文学』, 岩波書店, p.109~118
- 富倉徳次郎(1992) 『卜部兼好』, 吉川弘文館, pp.25~69
- 三木紀人(1979) 『徒然草(一) 全訳注』, 講談社, pp.27~35
- 三谷栄一・峰村文人 編(1966) 『徒然草解釈大成』, 岩崎書店, pp.6~7
- 安良岡康作(1981) 『中世的文芸の理念』, 笠間書院, pp.61~80
- 山本吉左右(1990) 『座談会 : 語りと書くこと—平家物語へ向けて—』, 『日本文学』, 日本文学協会, pp.1~32
- 与謝野晶子(2001) 『鯉』, 『与謝野晶子評論著作集』第一五巻, 竜溪書舎, pp.150~154

- ❖ 투고일 : 2007. 12. 31.
- ❖ 심사일 : 2008. 1. 25
- ❖ 심사완료일 : 2008. 2. 10.